

冬장군 어디갔나... 사라진 겨울특수

광주·전남 기온 1~4도 상승... 눈·한파 실종에 적설량 '0'
스키장 찬바람·골프장 신바람... 유통업계 의류 매출도 급감

겨울이 사라졌다. 예년에 비해 눈도 없고, 평균 기온이 1~4도 이상이 높아 사실상 겨울을 느낄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사용도 줄고, 유통업계의 겨울 의류 매출도 급감하고 있다. 눈을 기다려야 하는 스키장은 스키어들이 줄면서 울상인 반면 겨울철 비수기였던 골프장은 때마침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전남지역 농업 분야도 아열대 작물 재배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어업과 양식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1월 평균 기온이 예년에 비해 1~4도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7일 광주의 최고기온은 17.7도로 1월 기준으로, 1939년 관측 개시 이래 두 번째로 기온이 높았다. 이날 최저기온 또한 8.7도로 상당히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이해는 광주의 평년(1981~2010년) 최저기온(영하 3도)보다 11.7도 높고, 최고기온(5.6도)보다도 12.1도 높았다. 같은 날 완도의 최고기온은 19.3도, 장흥 19.2도, 영광 16.8도, 해남 18.5도를 기록하는 등 초봄 날씨를 보이면서 기상 관측 이래 1월 중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올 겨울, 광주·전남에서 눈 구경도 힘들었다. 지금까지 적설량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달 3일 진눈깨비 형태로 첫 눈이 내리는 등 모두 4차례의 눈이 내렸지만 적설량을 기록하지 못했다. 당분간 눈 소식도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중순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눈 구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 겨울 속 포근한 기온이 이어지면서 업계 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사용량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유통업계의 겨울 아웃도어 의류상품 매출은 역신장을 기록했다. 반면, 골프의류 및 골프용품 매출은 늘어나는 등 상품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골프 부킹사이트 XGOLF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골프장 예약 건수는 2만 7183건으로 전년 동기(2만993건)보다 약 30%(6190건) 증가했다. 특히 겨울철 대표 간식으로 꼽히는 호빵 매출은 제자리 걸음인 반면 아이스크림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이례적이다. 이같은 이상 기후 속에 전남의 아열대 작물 재배 종과 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연안 해역의 어업·양식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서해상 저기압과 일본 남쪽해상으로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따뜻한 강한 남서류(따뜻한 수증기)가 유입돼 이례적으로 평년보다 6~13도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다"면서 "당분간 눈 없고 큰 추위 없는 겨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실종된 광주의 겨울 14일 광주시청 문화광장 야외스케이팅장에서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당분간 눈과 큰 추위 없는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부동산 대책 끝없이 내놓겠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검찰, 인사 프로세스 혁명
남북 대화·협력 노력 지속”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일부 지역은 정말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면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등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신뢰’와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향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며 “윤 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윤 총장에 공개 경고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장관은 충분히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다.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빗을 찢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



“질문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칭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위원장의 비핵화 및 답방에 대해 여전히 신뢰를 갖고 있는냐는 질문에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전서를 보낸 것을 거론하며 “남북관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 늘어

나갈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협치 내각 구성을 밝히기도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대화·타협·소통하는 정치 복원 시급”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직후 환담에서 “우리 정치에서 다시 대화하고 타협·소통하는 정치를 복원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총리께서 6선 국회의원이시고 국회의장을 하시기에 국회·야당과 대화·소통하면서 서로 협력·타협하는 정치를 이루는 데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어 “실물경제 출산에 산업부 장관도 역임하셨기에 경제 식견과 경험도 아주 높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점점 희망을 보여주는 과정에 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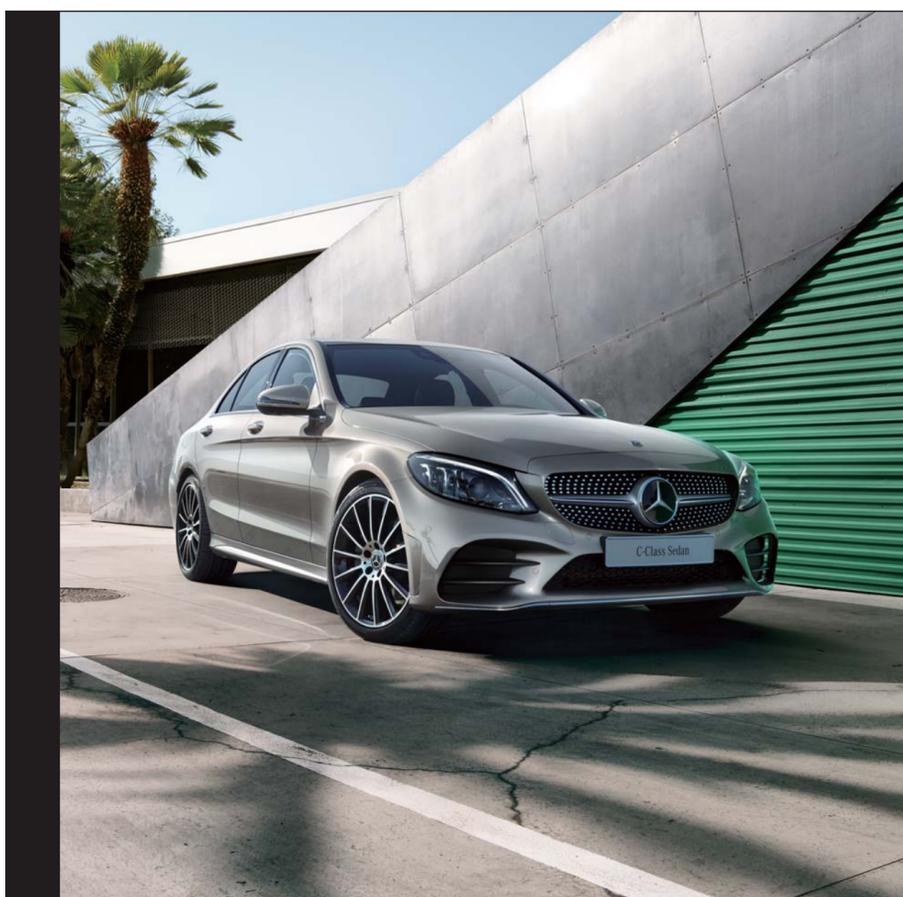
에 총리도 경제인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내각 전체를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그런 부분을 잘 살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고 싶다”며 “내각 국무위원과 많은 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으면 틀림없이 성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정 총리 임명을 재가했으며, 이에 따라 정 총리는 이날 0시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문화전당, 민주·평화 세계에 확산 ▶2면

임영진 교수가 본 마한 - 성립 ▶1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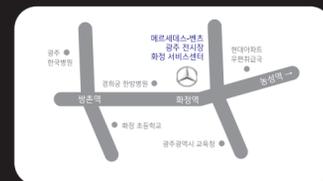
김선빈 4년 40억... KIA에 남았다 ▶20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l(도시연비: 13.2km/l, 고속도로연비: 16.3km/l),
등급: 2등급, 복합CO₂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